

# 2022 호주 총선 결과 및 시사점



## Global Market Report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 I. 총선 결과 및 평가 / 1

---

#### II. 한-호 협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 / 5

---

6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
7	핵심광물
8	인프라
9	방산
10	외교
11	의료·바이오
12	세금·경기부양
13	이민

#### III. 시사점 / 14

---

## 요 약

### □ 총선 결과

#### ○ 2022년 호주 총선, 노동당 집권 확정

- 하원의석 151석 중 75석 확보,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 확정

\* 다수당(노동당) 당수 알버니즈 총리 확정, 노동당이 과반(76석)을 넘는 77개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개표 중), 과반의석 미확보 시 무소속 의원 협력 하 정부 구성 전망

### □ 노동당 주요 공약

#### ○ (기후변화)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 및 녹색 기술 활용한 제조업 활성화

- 203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

- 친환경 금속 등 기술에 투자하고, 전기차 가격 인하 및 세금 혜택 제공

#### ○ (핵심광물) 광물 활용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

- 단순 채굴을 벗어나 잠재력 및 부가가치가 높은 처리 기술 도입 추진

-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광물 프로젝트 확대 및 협력기반 구축

#### ○ (인프라) 前정부 인프라 지원책 지속 및 철도·전기버스 인프라 투자

- 10년 계획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으로 전역 도로 인프라 개선 및 경기 활성화

- 탄소배출 감축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버스 제조 인프라 구축

#### ○ (방산) 방위산업 투자 확대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 정책 전개

- 호주 방위산업 개발 계획 통한 국가 안보 개선 및 공급망 안정화 모색

#### ○ (외교) 포괄적 외교 강조, 호-중 관계 유지 및 미·영과 동맹 강화

- 제한적 외교 정책에서 포괄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

- 중국 견제 기조 유지, IPEF·쿼드·오커스 등 외교·통상 협력 강화

- (의료·바이오) 1차 의료혜택 확대, 일반의(GP) 인프라 개선 추진
  - 긴급의료 클리닉 확장 및 의료보험제도 보장 시스템 강화
  - 일반의(GP) 근무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제공
- (세금·경기부양) 다국적 기업 세금 규제 강화, 경기부양책 개선
  - 다국적 디지털 기업 세금 단속 강화, 최소 15% 세금 부과
  - 정부 지출 효율화로 국민 복지 증대
- (이민) 영구 이민비자 확대 방안 논의
  - 부족한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둔 '장기 이민 비자' 제공 확대
  - 저임금 및 노동력 착취 대상 임시비자 소지자 보호 필요성 강조

#### □ 시사점

- 탄소중립(녹색 기술 등) 및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협력 기회
  - (탄소중립) 탄소배출량 목표 상향과 녹색 기술 분야 투자 확대에 따른 한-호 양국 간 협력 가능성 모색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진작 기조에 따라 중소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다수 추진 전망
  - (인프라) 정부의 10년 계획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에 따른 호주 전역 낙후된 인프라 재건 및 신규 프로젝트 추진 예상
- 핵심광물 부가가치 진작에 따른 공급망 협력 의제 발굴
  - (핵심광물) 광물자원의 처리 기술 도입·확대 및 배터리 제조 부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관련 분야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호주와의 협업 의제 발굴
- 방산 협력 기회 확대, 對중국 외교관계 유지 전망
  - (방산) 국가 안보 중요성 강화 기조 및 호주 정부의 방위 산업 투자 증가로 관련 장비 등의 수입 확대 예상
  - (외교) 중국 견제 지속으로 무역 다변화 추진 전망

## I 총선 결과 및 평가

### □ 총선 결과

- 2022년 호주 총선, 노동당의 정권 탈환 성공
  - 5월 21일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노동당이 과반에 가까운 최대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이 확정
  - 노동당은 개표 77.2% 기준 151의석 중 과반에 가까운 75석 확보, 유력 경쟁당 자유연립당은 57석(자유당: 26석, 자유국민당: 21석, 국민당: 10석, 자유국가당: 0석)만을 차지 \* 5월 27일 오후 14시 확인 기준
  - 이번 총선 사전 여론조사 및 출구 조사를 통해 이미 노동당의 승리가 확실시된 분위기로 개표 68% 지점에 승리가 확정
  - \* 호주 하원은 전체 의석 151석 중 절대 과반인 76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 절대 과반 미만의 경우 최다 의석 확보당과 무소속 정당 연정 하에 내각 구성 가능. 최다 의석 보유당 당수가 총리가 됨.

#### <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 수 >

정당	당수	확정 의석수	개표 진행 의석수
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Anthony Albanese	75	4
자유연립당 (Liberal/National Coalition)	Scott Morrison	57	
녹색당 (The Greens)	Adam Bandt	3	
캐터스 호주당 (Katter's Australian Party)	Robbie Katter	1	
센터 연합당 (Centre Alliance)	Nick Xenophon	1	
독립당 (Independents)	-	10	
<b>합계</b>			<b>151</b>

주: 5월 27일 현재 개표 77.2% 기준

자료: 호주신문 ABC 뉴스

## &lt;참고 : 호주 선거 및 투표제도&gt;

## □ 선거제도

## ○ 의무 선거제도

-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은 호주선거관리위원회 선거명부에 등록 및 투표 이행 필수
- 선거명부 미등록 또는 선거권을 보유한 호주 시민이 투표를 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
  - \* NSW주 경우, 2021년 기준 55 호주달러 벌금
  - \* 우편 사전투표 가능, 해외 체류로 투표 불가능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통보 필수

## □ 투표제도

## ○ 연방정부 시스템의 上·下 양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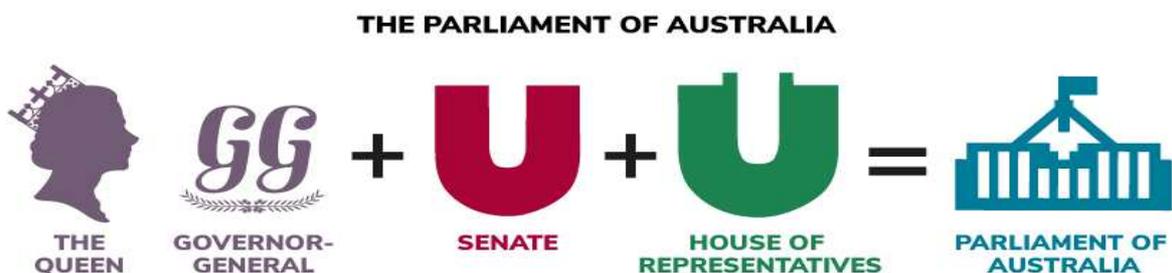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적용,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 배분

## ○ 상원 선출제도 :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6년 임기

- 호주 상원(Senate)은 주별 인구수에 관계없이 대선거구제도를 통해 선출, 6개 주와 2개의 준주가 각각 하나의 대선거구로 기능
- 6개 주에서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2명씩, 2개 준주에서는 임기 3년의 상원의원 2명씩 선출, 총 76명의 상원의원을 선출

## ○ 하원 선출제도 : 소선거구, 선호투표제, 3년 임기

- 인구비례에 의해 설정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151명의 의원으로 구성
- 선호하는 후보자들에 우선순위 기재하는 선호투표제와 소선거구제 적용



자료: Parliament Education Office

□ 주요 정당 및 확보 의석수

명칭	노동당 (Labor Party)	자유당 (Liberal Party)	녹색당 (The Greens)
로고			
현 당대표			
	Anthony Albanese	Scott Morrison	Adam Bandt
설립년도	1901	1944	1992
홈페이지	<a href="http://www.alp.org.au">www.alp.org.au</a>	<a href="http://www.liberal.org.au">www.liberal.org.au</a>	<a href="http://www.greens.org.au">www.greens.org.au</a>
의석수 <sup>주1)</sup>	상원	26석	31석
	하원	75석	57석
이념	민주사회주의	보수주의	자연친화, 평화민주주의
특징	- 현존 호주정당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호주 최초 근대정당	- 자유연립(Coalition) <sup>주2)</sup> 당 소속 주요 정당 - 노동당의 의회진출에 자극받은 업계가 이익 단체를 형성, 현재 자유당의 기반	-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사회 정의, 평화와 비폭력주의를 기반으로 설립된 근대정당

주1: 의석수 5월 27일 현재 개표 68.1%(상원), 77.2%(하원) 기준

주2: 자유연립(Coalition)은 Liberal party와 National party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당

자료: 호주신문 ABC 뉴스(의석수)

□ 선거 결과 평가

- 노동당 주요 승리 요인은 진보적 기후변화 정책 및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분석, 96.8%의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 (2019년 92%)
- (기후변화) CNN 등 주요 외신, '기후변화 대응'을 노동당의 공약 중 자유연립당과 가장 차별화되는 공약이자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로 분석

정당	기후변화 정책
노동당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자유연립당	• 기존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28% 감축 유지

- (경제회복)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01년 이래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 및 집값 상승 현상\*,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관건
- \* 호주준비은행의 코로나19 發 경제 침체 대응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로 부동산, 금, 현금 등 현물 자산 수요 증가. 아울러 러-우 전쟁 및 중국의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로 물가 및 집값 상승 현상 초래

정당	경제회복 정책
노동당	• 아동, 노인 및 저임금 노동자 금융 지원 대폭 확대, 임금인상 지원 (예) 연소득 53만 호주달러 미만 가정에 대한 보육 보조금 증액 및 보편적 보육 보조금 90% 제공 방안 검토
자유연립당	• 사회 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세부 사업 보조금 증액,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정의 적자 만회 위해 효율적 경제 관리 중요성 주장 (예) 5세 이하의 두 번째 자녀 보육 보조금을 최대 95%까지 인상

- 자유연립당의 주요 패인으로는 코로나19 發 여론 악화에 기인
- 모리슨 정부, 코로나19 장기간 고강도 봉쇄 조치로 경제 침체 초래, 비판 세력 확산에 따른 지지율 하락 영향
- 한편 노동당은 친중 정권으로 여겨지던 이전 외교적 성향에서 선화, 기존 모리슨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노동당은 집권 시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호주의 대중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 일축

## II 한-호 교역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 <요약표>

구분	주요정책	예상효과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li> <li>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인력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술 협력, 자재 수출 증대</li> <li>기후변화 정책 활성화에 따른 광산업 운영규제 강화 예상</li> </ul>
핵심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광물 및 희토류 처리 기술 개발</li> <li>주요국과의 협업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협업 기회 증대</li> <li>글로벌 공급망 협정 체결 및 양국 주요 기업 MOU 통한 한-호 협력 강화</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계획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책 유지</li> <li>국가 철도 제조 계획</li> <li>전기 버스 제조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유지 및 전기버스 제조 시설, 충전소 구축에 따른 관련 설비, 자재 시장 유망</li> </ul>
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 방위산업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li> <li>국제적 안보 향상 위한 적극적 외교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위산업 강화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 수출 기회 증대</li> <li>무기 및 장비 조달 투명화로 까다로운 수출입절차 도입 예상</li> </ul>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적 외교 정책 타개, 포괄적 협력 강조</li> <li>글로벌 외교·통상관계 부문의 핵심 국가로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협력 강화</li> <li>글로벌 외교 정책 활성화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협업 기회 다대</li> </ul>
의료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보험 및 제약 혜택제도 활성화 추진</li> <li>일반의 인프라 개선 통한 1차 의료 시스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호주 시장 진출 기대</li> <li>일반의의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 의료의 기술 제휴 가능성 모색</li> </ul>
세금·경기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적 기업 대상 세제 개혁 추진</li> <li>점진적 경제 회복 위한 경기 부양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적 디지털 기업 대상 제재 시행, 한국 중소기업 세제 타격은 없을 전망</li> <li>임금 인상, 호주진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li> </ul>
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임시비자 소지자 고려한 이민정책 재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시비자 소지자 대상 영주 비자 제공 확대 전망, 특히 기술 이민 부문 기회 증대 기대</li> </ul>

\* 노동당 공약 분석

## 1 기후변화 ·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목표강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 □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43%로 상향조정(기존 목표 26~28%)
  -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760억 호주달러 투자
    - \* 전력망 개발 통한 전기세 감소 기여, 2025년까지 가구당 연간 275 호주달러 전기세 절감 추진, 60만개 일자리 창출
  - 국가 재건 기금 중 30억 호주달러를 친환경 기술 활용 제조 기술에 투자
    - \* 친환경 금속(Green Metals) 생산, 친환경 에너지 제조업, 수소 전해 기술 및 연료 대체, 산업용 메탄 사용량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
- 전기차 사용 증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추진
  - 전기차 가격 인하 및 국가 전기차 산업 전략(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y) 추진에 향후 3년간 2억 호주달러 투자
  -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 및 전기차에 대한 특별 세금 혜택 지원
    - \* 5만 호주달러 가치의 전기차 사용자에게 연간 최대 9천 호주달러 혜택 제공

### □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인력 양성

-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 투자 확대
  - 전역 85개 태양열 은행(Solar bank)\* 설치 및 400개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 구축
    - \* 지역 사회 구성원이 태양열 프로젝트 일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관련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기 지분을 소유. 동 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크레딧으로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일정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하는 효과를 지님
- 미래 에너지 기술 개선 및 인재 양성 지원책 강화
  - 울런공 지역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해 1,250만 호주달러 투자
    - \* 울런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미래 에너지 기술 센터에 1,000만 호주달러 투자
  - 뉴캐슬 대학교(Newcastle University) 에너지 연구 및 실험 센터 건축에 1,600만 호주달러 지원
  - 미래 에너지 견습생 10,000명 육성 부문에 1,000만 호주달러 투자

## 2 핵심광물 : 주요광물 개발 확대, 글로벌 공급망 강화

### □ 핵심광물 및 희토류 처리 기술 개발

- 핵심광물 부가가치 증진 및 광업 과학 기술 개발 지원
  - 호주 자원 산업 개발 및 광업 과학기술 역량 확장을 위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관련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채굴 및 자원 교역 외 잠재력 및 부가가치 높은 광물 처리 기술 도입 및 확장, 특수 배터리 제조 기술 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
  - 호주 광업 과학 기술 역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10억 호주달러 지원
    - \* 대출 및 보증제도 완화 통한 국내 광업 과학 기술 기업 지원
-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한 광업 부문 지원 정책
  - 고유가,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로 배터리 광물 부문 정부 투자 지속
  - 광물 처리기술 투자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수출 기회 진작
  - 전 정부에서 수립한 '호주 핵심광물 전략' 사업을 유지하고,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촉진 및 투자 유치 활성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의 3대 목표 추진

### □ 주요국과의 협업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 광물 탐사 및 연구개발 협업 증가 전망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및 EU와의 핵심광물 합작 프로젝트 개진
  - 현지 대학교와 연구개발 추진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강화

### 3 **인프라 : 10년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철도 및 버스 제조 인프라 구축**

#### □ 10년 계획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책 유지

- 코로나19로 위축된 건설 경기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부문 정부 지원 확대
- 호주 전역의 교통 및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진행 중, 신규 프로젝트 지속 추진 전망
-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고용 창출 효과

#### □ 국가 철도 제조 계획

- 국가 철도 제조 계획(Labor's National Rail Manufacturing Plan) 통한 철도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 호주 산업부 산하 국가철도산업합동부서 창설, 지역 연구개발 및 기술역량 확대, 철도산업 확장 및 일자리 개선에 기여
- 향후 20년 주요 철도 프로젝트: 내륙 철도, 브리즈번 크로스 리버 레일 (Cross River Rail, 브리즈번 중심부를 통과하는 지하 철도 프로젝트), 멜버른 메트로 전철, 시드니 메트로 철도 및 대중교통, 캔버라·폴드코스트 지역 경철도, 멜버른 교외 철도 루프, 서호주 메트로 등

#### □ 전기 버스 제조 인프라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청정에너지 전환 위해 전기버스 제조 분야 지원
- 2024-25년까지 버스 제조시설 및 충전소 구축 등 신규 인프라 개발에 2억5,000만 호주달러 지원
- \* 전기버스 제조(130대) 8,000만 호주달러, 시설비 5,000만 호주달러, 차고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1억2,000만 호주달러 투입
- 300개 기존 일자리의 청정에너지 전환 및 1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4 **방산: 방위산업 투자지원 확대, 주요국과 안보 협력 강화**

##### □ 호주 방위산업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 호주 GDP 2% 이상 방위산업 지속 투입, 국가 안보 강화
  - 노동당 국가 안보 정책 3대 핵심 ①호주 영토 보전 및 수호 ②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주권 보호 ③지속가능 성장 및 안정적 고용 등을 위한 국방 부문 투자 지속 전망
- 방위산업 개발 계획(Defence Industry Development Plan) 통해 국가 안보 개선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
  - 국방 혁신 부문 30억 호주달러 투자, 이중 방위 시스템 첨단화에 2,700억 호주달러 지원, 산업 역량 및 제조 부문 발전 기여
- 차세대 사이버 안보 도입
  - 사이버 전담 장관 임명 통한 호주 전역 사이버 안보 및 회복력 향상
  - 공공, 민간 및 시민 조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데이터 복원망 구축

##### □ 국제적 안보 향상을 위한 적극적 외교 정책

- 2024-25년 1,200만 호주달러를 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프로그램(Pacific Maritime Security Program)에 투자
  - 태평양 섬 15개 지역 불법 행위 감시를 통한 불법 어업 손실 해결
- 호주 태평양 방위 학교(Australia Pacific Defence School) 창설 및 태평양 군사 작전 훈련 시행, 방위 프로그램 추진 통한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 호주-미국-영국 삼국안보 협력 관계 개선 및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국방 및 안보 협정 추진

## 5 외교 : 주변국 외교 강화, 글로벌 외교 활성화 추진

### □ 제한적 외교 정책 타개, 포괄적 협력 강조

- 호-중 관계 개선보다 대체 시장 발굴 우선
  - 양국의 외교적 입장 및 통치권에 대한 존중 강조, 호-중 갈등 타협점 불투명해 전 정권 對중국 정책 이어갈 전망
  -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주변국과 외교관계 강화 등 포괄적 대외정책 강조
  - 솔로몬제도-중국의 안보협정 체결이 호주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대, 이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동남아시아 국가와 우호적 외교관계 구축
  - 해외개발지원(ODA) 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에 4억7,000만 호주달러 지원
  - 호주 외교통상부 내 동남아 사무소 설립, 해당 지역 관련 호주 정부 지원책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추진

### □ 글로벌 외교·통상관계 부문의 핵심 국가로 부상

- IPEF, QUAD, AUKUS 등 인도·아태지역 내 외교·통상·안보 협력 강화
  - 전체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 및 유럽, 영국, 미주, 인도까지 시장 확대, 중국 의존도를 낮춰 교역 안정성 확보
  - 호주 안보 및 국방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과 동맹 강화
-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통한 호주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및 무역 자유화 정책 기조 유지
  - \* 호주, 17건의 양-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및 7건의 무역협정 논의 중

## 6 의료·바이오: 보험 및 제약 혜택 활성화, 일반의 근무환경 개선

### □ 의료보험 및 제약 혜택제도 활성화 추진

- 긴급의료 클리닉 확장 및 의료보험 보장 시스템 강화
  - 최소 50개 긴급 의료 클리닉(Medicare Urgent Care Clinics) 창설 통해 응급실 운영 부담 감축
  - 의료 클리닉 이용 시 청구 비용 전액 의료보험으로 처리, 벌크 빌(bulk-bill) 제도 운영
  - 동 사업에 1억 3,500만 호주달러 4년에 걸쳐 투자
- 처방약 가격 인하 추진, 의약품 접근성 향상 도모
  - 처방약 최대가격 기존 42.50 호주달러에서 30 호주달러로 인하
  - \* 처방약 구매 시 최대 12.50 호주달러(29%)까지 절약 가능, 2023년 1월 1일 부 발효 예정

### □ 일반의 인프라 개선 통한 1차 의료 시스템 강화

- 코로나19 전염병 진료 최전선에 놓인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 발발로 신규 전염병에 대한 환자 진료, 병원 내 안전 수칙 구축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최근 일반의 근무환경 저하
  - 일반의 환자 접근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위해 병원 규모에 따라 25,000~50,000 호주달러 지원, 4년에 걸쳐 총 7억 5,000만 호주달러 투입
  - \* 직원 교육, IT 원격 의료 시스템 개선, 장비 구매, 환기 및 감염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 7 세금 · 경제회복: 다국적 기업 세금규제 강화, 경기 회복

### □ 다국적 기업 대상 세금 부과 확대

- 호주 기업 경쟁 평준화 위해 다국적 기업 세금 단속 강화
  -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 부과
  - \*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 세율을 지불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소세 적용,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 이뤄지는 곳에 과세
  - 관련 조치 통해 2023년부 4년간 18억9,000만 호주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국적 기업의 부채 관련 공제를 수익의 30%로 제한할 예정, 이와 함께 세금정보, 실소유주, 조세피난처(Tax haven) 공개 등 신규 요건 추가, 투명성 강화

### □ 정부 지출 효율화로 국민 복지 증대

- 경제 계획 및 예산 전략(Economic Plan and Budget Strategy) 통한 물가 상승 완화, 임금 인상, 불필요한 정부 지출 삭감 추진
  - 국내 기업 대상 세제 인상 계획은 없는 한편, 임금 인상 유도를 위해 신규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및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 \* 2019년 노동당은 부동산 투자 세금 혜택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 양도소득세 할인을 50%→25% 인하 등 저소득층 중심의 세금 정책을 개선, 중산층 및 고소득층 유권자들의 표심 획득에 실패한 바 있음
  - 자유연립정부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정부 지출 삭감
  - 메디케어, 노인요양, 보육 및 교육 등 주요 서비스 이용 관련 세금 재정비 및 정부 지원 확대 등
  - 일자리 창출 및 참여도 개선, 임금 인상 통한 소득 증대, 인적 자본 투자 통한 생산성 향상 모색

## 8 이민: 이민정책 재정비

### □ 단기 임시비자 소지자 고려한 이민정책 재정비

- 크리스티나 케넬리 노동당 내무부 담당 의원, 호주의 단기 임시비자 의존도 재검토 필요성 피력
  - 낮은 임금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을 지속 공급하는 것보다 부족한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
  - 일시적 이주보다 영구적인 이민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호주 시민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
  - 이민정책 개편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로 자유연립당의 비판을 받는 한편, 실현될 경우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전망

### III 시사점

#### □ 노동당 승리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기회

- (탄소중립) 탄소배출 감축목표 43%로 상향 조정, 이에 따른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 및 양국 협력 기회 주목
- 2021년 12월 대통령, 2022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호주 순방 계기, 양국 정부-기관-기업은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분야에서 총 6건의 MOU를 체결하며 한-호 에너지 파트너십 구체화

<한-호 탄소중립 기술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

구분	제목	체결주체		MOU 내용
		한국측	호주측	
수소경제	한-호 청정수소 공동연구 협력 MOU	에너지기술 평가원	산업과학 에너지지원부	청정수소 공급망,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한-호주 공동연구 기획 및 펀딩 지원
	수소버스 실증 협력 MOU	현대차, H2Korea, 효성, 코하이젠	맥쿼리 은행 등	현대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호주기업 수소버스 제작, 실증 협력
CCUS	한-호 CCUS 협력 MOU	K-CCUS	CO2CRC	국제공동 CCS 사업 발굴, CCUS 혁신기술 개발, CCUS 실증 공동참여 등
	CCUS MOU	SK E&S, 무역보험공사, K-CCUS	Santos, CO2CRC	호주 내 CO2 저장소 개발 공동협력, Cross Border CCS 프로젝트 실행 등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	광해광업공단	광물협회	광산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 매칭 지원 등
	희토류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	광해광업공단	ARAFURA	희토류 광산개발 및 생산물 활용 부문협력 기반 구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편, 기후변화 정책 확대에 따른 현지 광물 탐사, 채굴 기업 및 광산업 운영에 규제 강화 예상

- (신재생에너지) 배출감소 및 친환경 에너지 진작 기조에 따라 중소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전망
- 전기버스 및 제조 인프라, 충전소 구축 수요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확대

<대표사례① : 호주 수소충전소 설치 프로젝트>

사업 개요	<b>개요</b>
	호주 시드니 수전해 수소충전소 프로젝트는 현대차 호주법인의 시드니 본사 맥쿼리 파크에 설치될 예정으로 2014년부터 현대차 호주법인이 운영해온 기존 수소 충전소를 대체할 계획
	<b>협력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GV(호주): 수소 장비 솔루션, 설치 및 서비스를 제공</li> <li>- VYS Energy Solution(미국): 수소연료보급 솔루션</li> <li>- PDC Machines(미국): 수소압축기 등 수소 충전소 설비 제공</li> </ul>
규모	170만 호주달러 (약 15억원)
특기 사항	해당 충전소에는 통합 전해조 설비가 설치되어 매일 최대 20kg의 수소가 현장에서 생산되며 700bar의 충전능력을 제공
	
현대자동차 호주법인 본사 수소충전소	캔버라 소재 수소 충전소

자료: 현대자동차

<대표사례② : Woodside Energy 국내 융복합 수소충전소 합작법인 하이넷 설립>

<b>사업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odside Energy는 호주 자원개발, LNG·석유 생산 및 시추 탐사하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안정적인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조성 적극 추진 중</li> <li>- 2019년 9월 한국가스공사와 녹색수소 프로젝트 R&amp;D 협약 체결하여 수소 생산·저장·운송·유통 등 전 밸류체인에 걸친 공동 연구 추진</li> <li>- 2021년 9월 한국가스공사, 현대로템 등 5개사와 공동 투자로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시내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하루 최대 72대의 수소버스를 충전가능 충전소 6곳 구축 계획, 연간 승용차 1300대(연간 200톤) 충전 가능</li> </ul>
<b>규모</b>	사업비 53억원 투입
<b>계획</b>	2030년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 100개 설립

- (인프라) 10년 계획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호주 전역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따른 대규모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상
- 도로 및 철도 개선 공사 활성화로 관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확대

<대표사례 : GS 건설의 호주 도로 공사 프로젝트>

<b>사업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S 건설은 2021년 10월 호주 노스이스트링크(North East Link Primary PKG) 민관합작투자사업 입찰에 참여해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산하 주무관청으로부터 낙찰자로 선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li> <li>- 해당 사업은 호주 멜버른(Melbourne) 지역의 북동부 외곽 순환도로 (Metropolitan Ring Road)와 동부도로간(Eastern Freeway)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심 확장에 따른 인구증가 및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li> <li>- 총 6.5km의 편도 3차로 병렬 터널 및 이에 따른 환기 시설, 주변 연결 도로 등을 시공, 완공 후 25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예정</li> <li>- 이외에도 GS 건설은 2022년 3월, 4조 5,000억원 규모 호주 지역철도 공사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함</li> </ul>
<b>규모</b>	계약 금액 약 31억 7,526만 호주달러(약 2조 7,785억원)

□ 핵심광물 부가가치 증진에 따른 공급망 협력 대두

- (핵심광물) 자원 처리 기술 증진 및 배터리 제조 부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관련 분야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 호주 광물 생산업체들과의 적극적 공급망 협약 통한 안정적 수급 방안 모색

<대표사례 : 삼성 SDI와 호주 QPM 사의 니켈 공급협약>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퀸즐랜드 태평양금속(Queensland Pacific Metal)은 2007년 설립된 제련 전문기업으로 호주 퀸즐랜드 주의 TECH(Townsville Energy Chemicals Hub) 프로젝트 소유 기업이며 니켈, 코발트를 생산</li> <li>- 2020년 11월 삼성 SDI는 호주 QPM사와 TECH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6천 톤 규모 니켈 수입 관련 MOU를 체결</li> <li>- 한편, 2021년 6월 LG에너지솔루션사는 QPM사 지분인수 및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 니켈, 코발트 수입은 2023~2033년 예상</li> <li>-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 호주 광물 생산업체들과의 적극적 공급망 협약 통한 안정적 수급 방안 모색</li> </ul>
규모	3~5년 동안 연 6천 톤 공급
공사 기간	2022년 중반 공장 건설 개시, 2023년 9월경 생산 계획
	
Townsville Lansdown 프로젝트 사이트	

자료: Queensland Pacific Metal

- 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기업 간 투자매칭 기반 광산개발 및 생산물 활용의 대외 협력 기반 구축 기대

-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원 부국 호주와의 협업
  - 양국 간 범정부적, 기업 간 업무 협약 체결 활발히 진행 중

<대표사례 : 호주 ASM 사의 한국 희토류 정제공장 설립>

<p><b>사업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기업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사는 해외 희토류 정제공장 설립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더보(Dubbo) 지역 광산 채굴 2개의 핵심 사업을 추진</li> <li>- 한국의 對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도 92.8%</li> <li>- 한국의 전기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내 희토류 및 희귀금속 수요를 바탕으로 충북 오창에 희토류 금속 정제공장 설립을 추진, 2022년 5월 12일 준공식 개최</li> <li>- 한국 정제공장 설립 과정에서 관련 한국기업인 지론텍을 인수 하였으며, 국내법인 KSM메탈스 설립</li> <li>- ASM 보유의 호주 더보 광산에 채광 시설 및 산화물 소재화 화학 공장 설립에 현대 엔지니어링 참여</li> <li>- 희토류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확보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ASM의 한국 진출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희토류 및 희소금속 수요기업과의 안정적인 밸류체인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ul>
<p><b>규모</b></p>	<p>2021년 8월 2,600만불(약 300억원) 투자</p>
	
<p>준공식 VIP 테이프 커팅식</p>	<p>공장 시찰</p>

□ 방산 협력 확대 및 對중국 외교 관계 지속

- (방산) 국가 안보 중요성 강화 기조와 호주 정부의 방위 산업 투자 증가로 관련 장비 수입 및 대외 국방 협력 체계 확대 전망
- 한화디펜스의 자주포 수출을 시작으로 한-호 양국간 방산 기술 제휴 및 협력 수요 진작 기대

<대표사례① :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호주 수출 계약 성사>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3월 호주 육군의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 (약 1조 1,800억 원 규모)의 단독 우선공급자로 선정</li> <li>- 해당 사업 수주를 위해 호주 용접업체 K-TIG와 MoU를 체결하고 자주포에 적용되는 군용차용 첨단 용접시공법개발</li> <li>- 2021년 2월 13일 9,000억 원 규모의 對호주 수출계약 성사</li> <li>- 2022년 4월 8일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한화 장갑차 생산 센터 착공, 2024년 완공예정, 국내 방산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한 사례</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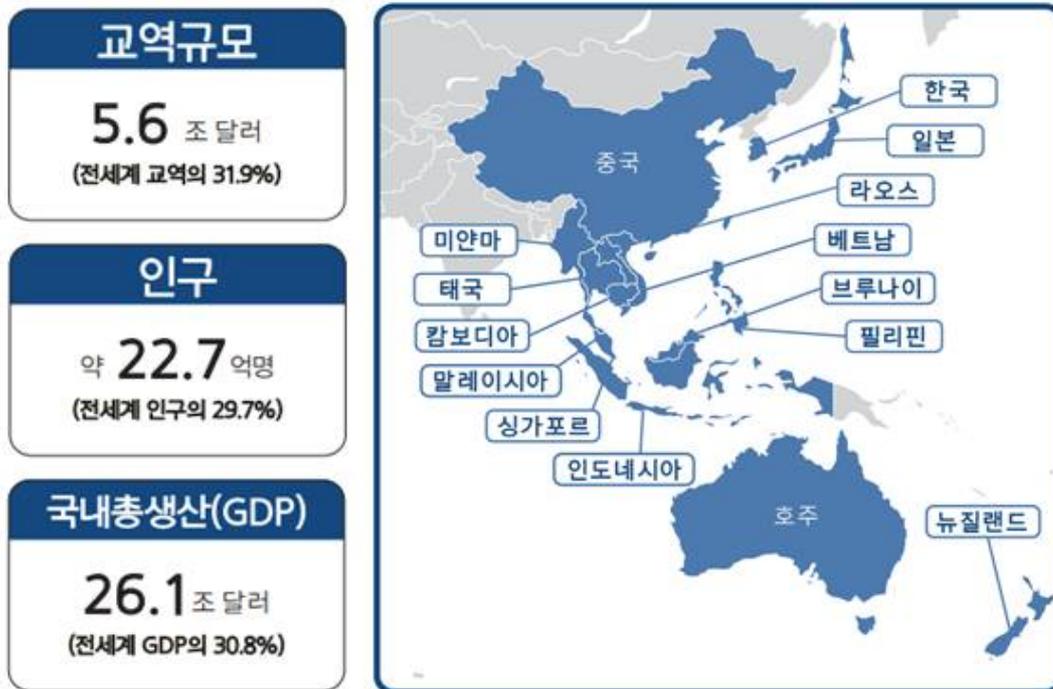
<대표사례② : 한화디펜스, 호주 장갑차 도입사업 추진 중>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호주 육군은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을 추진 중</li> <li>- 약 5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당 사업에는 한화디펜스의 Redback과 호주 독일 라인메탈 사의 Lynx KF-41 보병 전투 장갑차(IFV)가 경쟁 중이며 올해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li> <li>- 한화디펜스는 레드백 현지화 작업을 통해 호주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 결과에 따라 호주 장갑차 생산센터에서 레드백도 제작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를 검토 중</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화디펜스 AS21 Redback IFV</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라인메탈(Rheinmetall) Lynx KF-41 IFV</p> </div> </div>

자료: Army Recognition

- (외교) 중국 견제 기조 지속, 주변국으로 무역 다변화 추진 전망
  - 기존 중국 제품 수입에 의존하던 호주 유통 및 수입사, 한국 및 기타 주변 아시아 국가 관심 증가
  - \* 2021년 기준, 호주의 상위 20개 교역국가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2021년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전체의 70%(4,190억 US달러)에 달함
  - \* 2022년 1월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발효

<RCEP 주요 지표 및 참여국 지도>



자료: 시드니무역관

<끝>

작 성 자

---

- 시드니무역관                    김하중  
    전희정

Global Market Report 22-011

## 2022 호주 총선 결과 및 시사점

---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2년 5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02-3460-7674
I S B N		979-11-402-0309-3 (95320)





##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 Global Market Report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